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부산광역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1회 수영강 생태 스토리텔링 & UCC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수영강의 아이들과 동대 8경
수상내역	최우수상
작가	장석순
기획의도	오륜대와 동대를 사이에 두고 흐르는 수영강 동대거랑에서 옛날 아이들이 놀았던 놀이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리고자 하였습니다.
작품설명 (시놉시스)	수영강의 아이들은 1960~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였다. 등장인물은 모두 실명이며 그 당시 10대의 개구쟁이와 철부지였던 아이들이 수영강에서 각종 놀이를 통해 성장해 온 이야기들이다. 동대8경은 작자 미상의 전해져 오는 내용을 아이들의 놀이와 오버 랍하여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어울려 놓았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라는 의미를 두고 싶었다. 사람의 성장하는 환경이 인간의 행동을 이룬다는 이론이 타당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마음과 몸이 자라기 때문이다. 수영강에서 어린시절을 온통 벌거벗고 지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긴 인생의 여정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노년의 얼굴에 미소가 남는 일이 얼마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가!

수영강의 아이들과 동대 8경

오륜대를 가까이 두고 있는 동대는 수영강의 물길과 더불어 8경을 전하고 있다.

동래부지를 보면 ‘부의 동쪽 10리 지점 사천(絲川) 강변에 높이가 4,5장(丈, 1장이 10尺)되는 바위가 깎아지른 듯이 서 있고, 골짜기 물이 활 모양으로 휘돌아 안고 흘러 수장(수십 尺)의 맑고 깊은 못을 이루어 그 소굴에는 고기들이 많아 가히 낚시를 할 만하다. 봄 여름 대 위에 올라보면 마음이 상쾌하고 탁트여 풍치가 있고 시(詩)를 지을 만하다’고 하였다.

동래부 읍지에도 ‘부의 동쪽 10리의 사천변에 높이가 3,4장 되는 바위가 깎아지른 듯 서 있고 물이 활 모양으로 안고 흘러 봄, 여름 대 위에 올라보면 마음이 상쾌하고 넓어 풍치가 있다’고 하였다.

일제 강점기의 동래 군지에는 ‘동래부의 동쪽 15리에 있으며 동천(東川)의 동쪽에 외로운 바위가 깎아지른 듯 서 있고 위 쪽은 활모양을 만들고, 아래쪽은 넓고 깊은 못을 이루고 있다. 돌벽에는 조봉진(曹峰振, 1816, 4~1817, 10 동래부사)이란 이름석자가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는 여기답이란 못이 있다. 동래부사 이춘원은 시(詩)에 이르기를 ‘왕손이 매년 왔다는 것은 알수 없어도(신라시대 구전) 왕손이 이곳에 노닐다 갔었던 곳이다’로 기록이 되어 있다.

원래 8경이란 11세기 중국의 북송 송적이 샤오상(호남성 동정호의 남쪽 소수와 상수가 합류하는 곳) 주변 8곳의 뛰어난 경치 청풍(淸風), 만종(晩鍾), 야우(夜雨), 귀범(歸帆), 낙안(落雁), 추월(秋月), 낙조(落照), 모설(暮雪)을 그려 ‘소상팔경도’라고 하면서 유래가 되었다. ‘관동팔경’ ‘단양팔경’등 경치 좋은 곳을 이르는 용어가 되었다.

동래부지에도 좋은 경치를 전망할 수 있는 8대를 소개하였다. 해운대, 몰운대, 태종대, 동대, 의상대, 겸호대, 영가대, 오륜대이며 여기는 동대의 팔경을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의 일상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경 8곳을 전하여 보고자 한다.

1. 아이들의 기지개 가야욱조(伽倻旭朝) 가야산, 구곡산, 아홉산에 솟는 아침 해)

동대의 뒤 편에 있는 마을은 동대마을이다. 어머들은 일꾼들과 자식들의 아침밥을 위해 아궁이에 쪼과 장작을 때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조무래기 아이들은 꿈틀대며 기상을 하고 있다. 이불에 돌돌말린 몸을 펴며 기지개를 한다. 포근히 잘 잤다는 뜻이다. 영호와 두호는 얼른 동대거랑에 가서 얼굴을 펑펑 씻으며 소금으로 양치를 하고 집으로 달려간다. 어머니는 김이 모락나는 수북한 밥사발을 밥상위에 내려 놓으신다. 어느덧 이른 아침의 흐린 해는 가시고 등곶길을 재촉하는 화사한 햇빛이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다. 어머니는 언제 아침밥을 드실지 모른채 일하는 머슴들의 밥상을 차리시며 온 마당을 가로 지르시며 일꾼들과 아이들의 아침을 챙기시느라 분주하시고 영호와 두호는 형제간에 제 할

일을 마치고 학교로 향해 가기전 인사를 한다. “ 학교 다녀 오겠습니다. ” “오냐 두호야 영호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아이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다 오너라” “예” 형과 집을 나서면 옆 집의 오모도 나오고 정환이도 나온다. 네 명이서 어깨동무를 하고 나오면 도래의 아이들도 삼삼 오오 길로 나오고 있다. 동대마을 도래마을 아이들은 사천독을 돌아학교로 가고 있다. 조금 있으면 안골의 아이들도 나오고 하면 말현이와 영만이도 나와 온 동네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길의 등 뒤에서 아홉산의 아침해가 환하게 솟아 올라 빙그레 웃음을 짓는듯 하다. “애들아 공부 잘하고 와~”하며 어머니처럼 배웅을 해 주는 듯 했다.

2. 병정놀이에 빠져 소를 잃어버리다. 윤악석애(輪岳夕靄 윤산의 저녁 노을)

도래에 사는 영만이가 말현이와 작당을 한다. 오늘 두호하고 성봉이와 한 판 붙자고 한다. 5학년인 영만이와 말현이는 4학년인 두호와 성봉이가 막상막하같다. 형, 아우 같지가 않아 평소 심상이 편치 않았다. 1살 많은 형으로서 위엄을 갖고 싶은데 두호와 성봉이가 형 대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 공부 마치고 나면 소풀 먹이러 구불산으로 가서 소 고삐 매어놓고 그곳에서 군인놀이를 하자고 했다.

두호는 동대마을에서 성봉이는 서곡 마을에서 영만이와 말현이는 도래마을에서 그렇게 구불산(윤산)에서 놀다보면 자연히 안골마을의 아이들도 몰려오게 마련이어서 수영강의 아이들은 전쟁놀이를 신명나게 구불산에서 한 판 치를 수가 있었다.

구불산에서 제일 길이 먼 두호는 부리나케 소를 가지러 집으로 달려갔고 구불산이 가까운 성봉이는 쉬엄쉬엄 걸으며 길가의 풀꽃 나부랭이를 꺾으며 걸었다. 영만이와 말현이는 그저 빠른 걸음을 걸어 각자 집에서 키우는 어린 송아지 정도의 소들을 데리러 갔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일꾼들은 모두 밭일, 논일로 집 안은 텅 비었어도 소똥의 냄새가 진동하는 한은 삶의 시간은 팽팽하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진공의 시간을 아이들의 개구쟁이 장난이 깨알처럼 고소하게 채워져 갔다.

아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불산 중턱의 평지에서 모였다. 이때 영호형님과 친구들이 따라와서 주변에서 얼썩거렸다. 형이 없는 말현이와 영만이는 슬그머니 기가 죽기 시작했다. 형이 있어 기세등등한 두호가 더 약이 오르게 알뜰게 여겨졌다.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나와서 편을 가르고 있다. 영만이는 이미 승산이 난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여하간에 싸움은 붙어볼 만하다고 여겨 말현이와 편을 먹고 성봉이와 두호가 편이되고 영호형님은 심판이고 형님의 친구들 둘이는 각편에 한 명씩 끼워졌다. 자 이제 싸움은 시작이다. 나뭇가지 하나씩 총자루라 여기며 집어 들고는 기관총 쏘듯이 입으로 두두두둑 하고 쏘면 입으로 으악으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도망가고 잡으러 가는 육탄전이 벌어지면 온 산은 숨이 가쁘다. 그 작은 발들로 온통 여기저기 통통거리며 밟고 지나가는 곳마다 땅은 다져져서 산은 야물어져 갔다. 온통 땀에 젖어 숨이 막혀 죽을 듯 해서야 전쟁놀이는 끝난다. 순간 성봉이가 소리를 질렀다. “소가 없어졌다.” 세상에! 성봉이의 소가 고삐를 풀고 사라진 것이었다. 모두들 얼굴이 가득 질렸다. 각자 매어논 소들을 확인해 보니 성봉이 소만 확실히 없어졌다. 모두들 성봉이의 소를 찾으러 다시 온 산을 헤집

고 다녔다. 성봉이의 안색은 겁에 질려 하얗게 굳었고 친구들은 싸울때의 비장함보다 더한 비장함으로 도망간 소를 찾으러 뛰어 다녔다. 한참 후에 큰소리가 들렸다. “야이 짜스들아 너거들 소 안 보고 뭐했노?” 소리난 곳을 바라보니 재두형님이 소를 몰고 산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산꼭대기에서 운동을 하던 중 소 한 마리가 슬슬 올라 왔다고 했다. 동네 소 인줄 알고 주인이 근처 있을거라 여기며 주인 찾으러 오던 중 아이들의 혼비백산한 모습을 보니 그 아이들중의 소가 틀림없으리라 여겨 아이들쪽으로 내려오셨다. 재두형님은 성봉이의 사촌형님이었다. 성봉이는 큰 안도의 낯빛과 함께 재두형님으로부터 큰 쿠사리를 들었지만 그건 이미 들리지 않는 잔소리에 불과했다. 소를 찾았으니까. 각자의 소를 몰고 내려오는데 윤산의 저녁놀이 빙그레 웃으며 아이들에게 배웅 하였다.

3. 동대거렁에서 썰매타기 범포비설(帆浦飛雪) 돛단배 포구에 날리는 눈)

동대 앞 수영장을 옛날에는 동대거렁이라 불렀다. 수영장의 하류에서부터 꽃가루 뿌리듯 내리는 눈을 보며 개구쟁이들의 가슴에는 불이 붙기 시작했다. 또 다른 놀이의 재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밤사이 차곡차곡 쌓인 눈들과 물위에서부터 얼어가는 동대거렁은 스케이트를 탈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놀이다. 벌써부터 두호의 마음은 바쁘기 시작했다. 밤사이 물이 더 푹푹 얼기를 기도했다. 바람이 차가운 저녁인데도 두호의 급한 마음은 동대로 달려가게 했다. 저 멀리 봉덕산 앞자락에서부터 새하얗게 날아오는 눈은 봄날에 흩어지는 매화꽃잎 같기도 했고 작은 솜사탕 같기도 했고 솜가루 같기도 했다. 북풍에 흔들리는 돛배의 깃발은 마치 눈을 흩어지게 하는 바람 같았다.

동대의 키 큰 소나무는 어린 두호가 चु지 않도록 솔잎으로 바람을 몰아내었다. 대 위에선 두호는 소나무 등지를 한 손으로 껴안으며 깊어가는 겨울의 수영장을 바라보았다. 울컥하니 어떤 그리움이 목을 메어왔다. 이상한 일이다. 이 시간에 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걸까? 잠깐 낮의 일이 생각났다. 말현이가 왕 사탕을 입에 물고는 침을 질질 흘리며 두호와 자치기 하자며 놀러 왔었다. 어찌나 맛있게 사탕을 빨고 있는지 먹고싶은 두호는 그 사탕 어디서 냈냐고 물었다. 말현이는 아버지가 동래장에 다녀오시면서 말현이 먹으라고 사오셨다고 했다. 아버지란 말에 두호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사탕이 맛있어 보이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멈춰버렸다. 그리곤 이내 자치기를 하면서도 마음 한 켠은 내내 슬픈 마음이 들었었다. 지금 그 생각이 다시 나는 것이다. 두호는 섭섭한 마음에 눈물이 소리없이 흘렸다. 저 멀리서 펄럭이는 돛단배의 깃발도 슬픈 두호의 마음을 위로하려는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겨울아침, 아홉산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태양은 동대마을과 안골, 도래의 아이들을 동대거렁으로 불러 모았다. 지난밤 내린 눈으로 동대거렁 둔치는 눈 미끄럼틀이 되었다. 아이들은 약속하지 않아도 비료부대 하나씩을 들고 왔다. 귀마개 목도리 장갑등 완전 무장을 하여도 연신 흘러내리는 누런 콧물들을 소맷부리로 쓱쓱 닦아대었다.

오늘은 정옥이와 경순이도 왔다. 키가 큰 정옥이는 영만이와 한 반인데 키 작은 영만이를 보통 구박하지 않는 것을 보니 좀 수상쩍었다.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경순이는 두호를 괴롭혔다. 이것도 수상한 일이었다. 아이들은 어찌되었던 한 덩어리로 뭉쳤다. 가지고 온 비료부대를 갖고 썰매대용으로 둔치의 눈 미끄럼을 타며 신이나

기 시작했다. 범포귀설의 눈은 수영강의 아이들에게 자연 눈 썰매장을 만들어 주어 심심하지 않게 키워주었다. 누군가가 또 시합을 하자고 제의했다. 아이들은 뭉치면 편을 갈라서 시합을 하거나 전쟁놀이를 했다. 동대교 아래에서 봉덕산까지 비료부대를 타고 누가 멀리 미끄러져 가나 시합을 하였다. 경품도 없고 시상도 없지만 아이들은 이기는 것의 승리감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했다. 오늘은 정옥이와 경순이의 응원을 받는 영만이와 두호가 아무래도 격전을 치루지 않을까 싶다. 출발선을 그어 놓았다. 수영강은 뽕뽕 얼어붙어 아이들이 비료부대를 타고 맘껏 굴러도 꿈쩍 않을 맹추위로 얼어 있었다 수영강의 아이들은 추위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끄럼과 썰매놀이를 할 수 있게 된 겨울의 수영강이 재밌기만 하였다. 자 이제 시작이다. 도움받기를 통해 다다닥 뛰어와서 얼른 비료부대 안으로 몸을 집어넣고 힘차게 썰매처럼 미끄러져 가는 것이다. 중학생이 되어 점잖아진 형들이 심판을 봐 주었고 선수는 언제든지 이 꼬맹이 집합들이 출전을 하였다. 영만이 편과 두호 편으로 갈렸다. 영만의 단짝 말현이, 정옥이, 두호의 단짝 성봉이와 경순이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이리저리 뒤를 이어 편을 가렸다. 두호의 형인 영호가 신호를 내렸고 정환이와 종화가 심판을 보았다. 아이들은 정말 신이 났다. 몸이 날아가는 그 순간의 스틸은 뇌가 짜릿짜릿해지며 온 몸에 불이 붙어 로켓트가 되어 하늘위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한참을 그리 놀다 드디어 대표선수 대결을 하기로 했다. 오늘, 음양의 조화를 받고 있는 영만이와 두호가 단연 두각을 내었다. 삼 세 번의 대결이었다. 2:2. 막상막하였고 마지막 승부 대결이었다. 출발선에서 두호가 더 빠르게 지나갔고 결국 두호가 간발의 차로 영만이를 이겼다. 영만이는 믿을수가 없었다. 한 살 더 많은 자기가 더 잘하고 힘도 세고 빠르기도 더 빠르는데 두호가 자기를 이겼다니 믿고 싶지가 않았다. 어쩌면 영호형이 두호를 봐 준것 같다고 여겼다. 은근히 항의를 해 봤지만 형들의 판결에 짝 소리도 못하고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아쉬움이 가득한 체 시합은 끝나고 배가 고파진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데 영만은 아무래도 두호가 마땅찮기만 하다. 엄마는 왜 형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불만스러워 하는 친구의 등을 토닥토닥 말현이가 두드려주었고 정옥이는 가만히 영만이와 함께 걸었다. 다시 겨울눈이 내렸다.

4.과수원 서리를 한 후 휴암모우(鵞岩暮雨 부엉덤에 내리는 저녁 비)

집에 온 두호는 중학교에 간 형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엄마도 일꾼들과 모두 풀뽕으로 밭에 가서서 심심했다. 밭길은 저절로 수영강 둔치로 향했다. 거기에 있으면 친구들이 자동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삼삼오오 친구들이 모여왔다. 약속도 안했는데 주머니에서 한 줍씩 제 먹을 간식을 꺼내었다. 찐쌀, 고구마 빼빼기, 삶은 콩, 삶은 고구마, 삶은 감자, 삶은 밤, 가을의 풍성한 먹거리들이 하나 둘 아이들 줍치에서 빠져 나오면 니것 내것 없이 골라 먹는다. 집에서 늘 텅굴던 간식들이 여기만 오면 왜 꿀맛으로 변하는지 아이들은 알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있는 말현이가 가끔씩 왕사탕을 갖고 오면 돌멩이로 깨뜨려서 조각조각 나눠먹을 때의 그 달콤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한담을 하며 놀고 있을 때 진석이 형이 기타를 메고 탐수아재와 지나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이 아재를 좋아했다. 가끔씩 탐수아재가 도시의 재미난 이야기들

을 들려주면 아이들은 영화를 보는 만큼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야기 속에 빠져 들었다. 그렇게 열심히 듣는 아이들을 보노라면 아재들은 더 이야기에 살을 붙여서 신나게 들려주었다. 진석이 형은 가수가 꿈이어서 기타를 배우고 있었다. 기타 치는 형이 멋져서 아이들은 형에게 붙어서 기타를 치보라며 칭얼대었다. 잠시 후 형이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면 탑수아재는 건들건들 춤을 추었다. 그 모습이 웃겨서 아이들은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었다. 한참을 노래하고 춤추며 웃고 떠들다 보니 기울어가는 저녁놀만큼 훌쩍하니 배가 고파져 왔다. 형들이 배 밭 서리 가자고 하니 아이들은 모두 좋다고 했다. 동대 옆에는 배 밭과 딸기 밭 포도 밭이 있었고 무 밭도 있었다. 저녁무렵이라 주인도 없고 온 마을 사람들이 먼 밭으로 가서 이제 돌아올 참이었으니 서둘러서 몇 개만 따면 나눠 먹을 수 있었다. 형들은 점잖게 망보고 조무래기들은 쪼로록 하니 뽀박질하여 뽀처럼 기어서 과수원을 통과하고 배를 타고 무를 뽑았다. 비가 내렸다. 날씨가 좀 흐린 날이긴 했지만 비가 오리라곤 예상치 못했다. 형과 아우들은 비를 피하려 원두막으로 올라갔다. 형들이 잘라준 배와 무들을 우적우적 먹으며 원두막에서 봉뎃산을 보았다. 샤르륵 샤르륵 과수원에 내리는 빗소리와 함께 비를 맞고 있는 봉뎃산이 키가 쭉쭉 자라는 것만 같았다. 부엉뎃산에서 수영강으로 저녁 비가 내리고 있었다.

5. 벌거숭이 아이들 명사백로(明沙白鷺 하얀 모래톱에 내려앉은 해오라기)

여름을 맞은 수영강은 장마가 지고 나면 그 넘쳐나는 에너지를 아이들을 위해 흐른다. 훌쩍 벗고 들어오는 아이들의 맨살을 부드럽게 휘감으며 시원하게 씻겨 주는 것이다. 수영강의 개구쟁이들 여름은 신명나는 물놀이의 최고조를 만끽한다. 회동수원지 아래에는 두 군데의 소가 있었다. 바위가 많은 곳의 아래에는 벼락소가 있었고 관리사무소 근처에는 짐때소가 있었다. 소가 있는 곳은 물이 깊고 물살이 세어 수영을 잘 하지 않으면 위험한 곳이기도 했다. 수영강의 아이들은 겁을 모르고 자랐다. 남자아이들이라면 모두들 바위더미로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는 것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배우려 다니지도 않았던 때이다. 험령한 팬티같은 반바지나 혹은 사각팬티만 입고 물속에서 뒹굴며 노는 것이다. 짐때소와 벼락소의 시퍼런 물살이 아이들을 저만치 밀고 가더라도 동대교 아래에서 머물게 되니 오히려 아이들은 더욱 물살에 떠밀려 가는것에 스릴을 느꼈다. 다이빙과 물놀이를 하며 놀다가 지치면 물고기 잡기를 하였다. 기다란 대나무에 낚시줄을 매달고 밥풀과 된장으로 떡밥을 하였다. 잠시 후면 뽕고마치가 낚시바늘을 물고 올라 오는 것이다. 아이들은 얼마나 큰지부터 살펴 보았다. 아재들이 고기를 잡을 때 작은 고기들은 강으로 도로 보내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동대 아래에는 여기담이 있어 엄청난 물고기들이 몰려 있었다. 여기담은 물살이 워낙 세서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그 주변에만 뽀 돌아도 물고기 한 양동이는 채워졌다. 하루 종일을 물속에서 몸을 담그고 놀다 보면 눈알이 토끼처럼 빨강게 충혈이 되었고 귀에는 물이 들어가 온통 먹먹한 감이 들어도 아이들은 지겹지가 않았다. 물놀이 몸살을 앓다가도 다시 수영강으로 들어가면 아픈건 혹 달아나고 물속에서 평화를 누렸다. 수영강의 아이들은 수영강이 아니면 놀 곳이 없었다. 이 동네의 아이들은 모두 여기서 자랐다. 정숙이 다리에 거머리가 붙은걸 수우 오빠가 때주었는데 거머리가 정숙이의 허벅지에 있었다. 정숙이는 기겁하여 울고 있었지만 수우

오빠는 용감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이야기는 웃음을 가져 주었다. 수우 오빠가 장난을 치는 것이다. 정숙이 뭐 뭐 봤다고 하며, 가져온 간식도 다 먹고 젖은 옷도 다 마르고 해가 뉘엿뉘엿해지면 그때서야 잡은 고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아무도 행복이란 걸 말할 줄 몰랐고 그것이 뜻하는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 몰랐지만 아이들의 해맑고 평온한 얼굴의 미소와 눈빛은 평화를 넘어 천국과 같았다. 저녁햇살은 하얀 모래를 반짝이게 했고 물결에 부딪혀 별빛처럼 빛나게 하였다. 아이들이 떠난 수영장의 하얀 모래톱에 해오라기 한 마리 고요를 지키고 있다.

6.손님맞이 기소약어(妓沼躍魚 여기담에 뛰노는 물고기)

도래의 영만이네 집에 며칠 후면 손님이 오신다고 했다 집안이 갑자기 분주해지니까 영만이라도 덩달아서 싱숭생숭 해졌다. 마당 한 가운데 있는 평상에 앉아 가만히 집을 둘러보니 연못에 있던 고기가 없어졌다. 수영장에 워낙 고기와 물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마당에다 가두리 연못을 만들었다. 거기에 잡아다 논 고기들을 풀어놓아 손님이 오시거나 할 때 매운탕이나 찜으로 대접하기도 하고 가끔씩 식구들 반찬으로 먹기도 하였다. 주로 큰 고기는 할아버지와 아재들이 잡아다 놓았고 자잘한 고기들은 영만이가 잡아다가 넣었는데 오늘은 고기들이 하나도 없고 빈 물만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문득 궁금해진 영만이는 소리높여 아재께 달려가서 고기가 다 어디 갔냐고 물었다 아재는 손님 오시면 반찬 할려고 장만해서 말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잠시 후 고기 잡으로 갈 건데 따라 갈거냐고 물었다. 당연히 영만이는 대답을 했고 미리 수영장에 가 있겠다고 하며 집을 나섰다. 역시 말현이를 불렀다. 둘이는 45도로 기울어 가는 늦여름의 태양을 받으며 수영장으로 걸어갔다.

여기담에서 고기를 잡을거니까 둘은 여기담 근처까지 와서는 들꽃들을 보았다. 온통 흰꽃들이 지천에 무리지어 피어 있었다 그 일이 어린 순 일때는 따서 나물도 해 먹고 늦가을에는 뿌리를 캐서 말렸다가 약으로 하는데 천궁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아재를 통해서 들었다. 아재는 마을 면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이모저모로 동네 이야기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는 영만이와 있을 때면 조곤조곤히 설명을 해 주곤 하였다. 한가로운 틈을 타서 눈에 들어온 흰 꽃을 보고 있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말현이와 영만이는 동대의 끝자락에 있는 여기담에서 돌맹이를 던지며 물수제비 놀이를 하였다. 영만이는 아재에게서 들은 여기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담을 마을 사람들은 대소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동대 아래 있는 소라고 동대소 또는 대소, 또는 여기담이라고 불렀다. 하여간 여기담은 동대의 아래에 있던 큰 소가 맞긴 하였다. 대소(여기담)에서 실을 풀어놓으면 물살이 어찌나 빠르던지 석대 천씨 우물까지 간다고 했다. 누군가 여기에 무얼 빠뜨렸다면 석대 천씨집 우물에 가서 찾으면 된다고 하니 말현이는 믿기지가 않았다. 말현이가 믿는둥 마는둥해도 말을 하고 있는 영만이는 아재의 말을 믿으므로 열심히 힘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느새 아재가 도착해서 낚시대를 드리우며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다. 영만이는 아까 본 흰꽃이 생각나서 아재에게 물었더니 지궁이라고 했다. 지궁은 지금의 궁궁이 풀 이름이다. 낚시대를 풀며 아재는 또 지궁이 이야기를 할 모양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등뒤에 있는 동대를 보며 옛날에 이곳에 왕들도 놀러 왔고 동래부

사도 와서 동대의 경치를 시로 남기기도 했다고 한다. 동래부사로 왔던 이춘원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선조 임금은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특히나 동래 지방의 민심을 위해 부사 이춘원에게 특명을 내려서 동래 지역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였다. 수영강 하구에 있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가 무너지면서 부산지방은 왜구의 침략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후 15년이 지났어도 재기의 방편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때 부사 이춘원은 부산의 경승지를 찾아다니며 시를 남기고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위무하며 문풍을 일으켰다.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문예부흥이요 르네상스였다. 그것은 정신의 힘을 갖고 다시 열심히 잘 살아보자는 사회적인 메시지였다. 이춘원이 그런 마음으로 부산의 경승지에 머물면서 남긴 시가 해운대, 태종대, 물운대, 겸호대, 동대(東臺), 온정(溫井), 정과정(鄭瓜亭)등이었다. 이곳 동대에 남긴 시를 아재는 영만이에게 들려 주었다.

동대 / 부사 이춘원

동대의 물은 맑고도 고운 물결
대 위의 봄바람은 이별하기 아깝도다.

왕손이 해마다 왕래하던 일 생각하는데
그 물가 강 언덕엔 잡초만 무성하네 (박석현 번역)

아재는 신라시대에는 왕들이 장산으로 사냥을 왔다가 이곳 동대까지 와서 쉬어 갔다고 했다. 왕손들은 경치가 좋은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수영강 주변에는 궁궁이풀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고 궁궁이는 한약재로 귀하게 쓰인다고 했다. 한참을 동대의 이야기를 하느라 고기를 잡는데 신경을 쓰지 못한 아재는 자리를 애기소로 옮기자고 했다. 애기소는 봉덕산 아래와 지금의 아파트형 공장의 오른편 사이에 있었던 또 다른 큰 소 였다. 여기담은 동대를 바라보면 좌편이었지만 애기소는 우편에 있는 소 였고 석대사람들이 즐겨 낚시를 하고 수영을 하며 놀았던 곳이었다. 아재는 많이 잡지 못한 고기를 애기소에서 만회를 하려고 자리를 옮겼고 두 아이 말현이와 영만이는 아재의 뒤를 졸졸 따랐다. 여기담의 바위틈에 숨었던 고기들은 자기들을 잡으려는 아재의 일당들이 자리를 떠난것을 확인하고는 기분좋은 마음으로 여기담을 뚱뚱 뛰어 올랐다. 기소약어 이다.

7. 금사마을의 유래 금사대연(錦絲帶煙 금사마을에 끼인 저녁 연기)

조선 중기 영조 때 편찬된 동래부지에는 부의 동쪽 8리에는 신천리(新川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래부읍지에는 신천리 대신 사천리(絲川里)로 기록되었으며 조선후기 고종 때에 나온 동래부사례에는 금천리로 되어 있고 일제시대에 편찬된 1937년 동래군지에는 금사리로 되어 있다.

자연마을인 사천리는 신내, 실내동네로 불리었다. 예부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본래 실

내거령(絲川)은 오륜동에서 흘러들어 등대 마을로 들어와서 다시 도래(回川里)로 돌아서 실내(絲川), 금천(錦川)으로 흘러 석대천쪽으로 합류하였다고 한다. 실처럼 부드럽게 흐른다고 사천이요 비단처럼 고운 물결이라 하여 금천이라고 부른 사천이었다. 여기서 금자와 사자를 따서 일제시대에 금사리로 통합하여 오늘날에 금사동이란 행정지명을 쓰고 있다.

자연마을인 금사마을은 낮이면 사람이 텅 빈 마을이 된다. 아이들은 학교를 갔거나 돌아오면 모두들 수영강으로 몰려와서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온통 여기서 놀았으며 소 풀 먹이러 가거나 소 풀 베러 가는 일 외에는 거의 수영강에서 놀았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일하는 사람들은 논, 밭으로 일을 나가시고 저녁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 오셨다. 아이들도 그때쯤 되어야 하나 둘 자리를 툭툭 털며 수영강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등대 위에서 보면 윤산의 저녁 놀이 비끼는 저녁무렵이면 집집마다 저녁 식사 준비한다고 아궁이에 지핀 불이 굴뚝으로 모락모락 연기로 피어올랐다. 하루 종일 밭일, 논일에 지친 어른들과 학교 공부하고 놀이에 지친 아이들이 이제야 가족들과 랑데뷰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마을은 텅 빈 진공 같은 모습에서 집집마다 말 소리가 들리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새어나며 모락모락 불을 피워 먹을것을 장만하는 생기가 소생하는 시간인 것이다. 엄마가 보고 싶었던 영만이는 저녁이나 되어서야 돌아올 것을 알기에 기다림을 메우려고 수영강에서 얼마나 놀았던지 살은 별정계 데었고 눈알이 시뻘정계 충혈이 되었다. 엄마의 치맛자락이 눈앞에서 왔다갔다하면 영만이라도 강아지처럼 엄마의 뒤편 졸졸졸 따라 다니면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엄마의 잔심부름을 짹짹하게 하기도 하였다. 수영강의 놀이보다 엄마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좋았던 것이었다 영만이는.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졌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밥상을 가운데 두고 가족들이 둘러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에서 수영강에서 밭에서 시장에서 가족들의 발길이 닿았던 곳은 모두 뉴스가 되고 이야기가 되었다. 웃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하루 종일 바라보지 못했던 애정의 시간을 눈으로 주고받았다. 수영강의 물속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엄마가 옆에 있어 밥이 더욱 맛있는 영만이는 씹씹하고 신나게 먹었다. 영호형이 있는 두호가 하나도 안 부러웠다. 우리 엄마만 옆에 있으면 뭐든지 최고였다. 엄마는 영만이에게 승냥을 따라 주셨다. 아~ 행복했다. 엄마는 영만이 행복의 완성이었다. 정다운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 할 이는 자연의 신일 것이다. 신이 인간에게 원하는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들. 금사마을에 저녁연기 피어오른다.

8.오륜대의 정기 선대귀운(仙臺歸雲 오륜대에서 돌아오는 구름)

오륜대의 지형은 매어있는 배 모양이다. 주산(主山)은 휴봉(부엉덤)인데 선동에서 뻗어 내린 줄기이다. 기암은 높이 첩첩을 이루고 가는 물줄기는 천길 벼랑 위에서 떨어진다. 이름 모를 새는 자연스럽게 날아오고 심지 않은 꽃도 절로 많이 핀다.

외부와의 통로는 단 한 개로 되어 있는데 길은 점점 층층대 위로 꼬부라져 올라가 길 가

는 사람이 보면 마치 반공(反空)으로 걸어가는 것 같다. 이것이야말로 양장(羊腸)이 아닐 수 없다. 대저 이 구역은 외형을 보면 산은 첩첩으로 에워싸고 물은 복스럽다. 신암(神巖)이 동북방에서 솟았는데 여기를 옛날의 절터라고 한다. 석탑은 허물어졌고 범종도 찬을 길 없다. 수목은 온 산을 가리웠고 물과 구름은 예와 다름없니 흐르고 있다. 해 끼칠 사람 없으니 사슴은 마음놓고 뛰놀고 욕심을 막으라는 학의 우는 소리가 귀에 들린다. 봄이면 이구역의 전체가 깊숙하며 화려하고 물은 골짜기마다 맑으며 바위 사이 꽃은 시냇물에 비치고 기이한 풀은 절벽에서 향기를 토하며 농부의 밭가는 것과 아낙네의 점심 이고 가는 것도 볼 만하다.

여름의 경치는 푸른 이끼가 굴혈에 깔렸고 흰 구름은 세곡에 잠겼으며 상마는 안개 속에 아물거리고 벼와 기장은 비를 맞아 깨어나며 초동의 노래는 봉산에서 아득히 들려오고 소 먹이는 아이의 저 부는 소리는 오정(烏汀)에서 일어난다. 임천은 새벽 창에 울리고 산새는 점심 뜰에 모여서 황국은 이슬을 머금었고 홍엽은 서리에 덮였으며 밤이 되면 방아 쪼는 소리 들려오고 나뭇가지에는 익은 과실이 달려있다.

겨울엔 거문고와 글 읽는 소리는 서당으로부터 들려오고 아낙네 베 짜는 소리는 안방에서 흘러나온다. 눈보라 모진 속에 푸른 송백은 지조를 지키는 듯 옛 빛을 그치지 아니하고 눈 오는 달밤에 번쩍이는 시내에 배를 타고 친구를 찾아간다.

이상을 미루어 보면 이곳이 속세를 벗어난 자연의 풍경으로 고사(高士)의 살 만한 곳이요 속자(俗者)의 거주할 곳이 아니다. 이곳의 지명으로 말하면 예전에 다섯 노인(五老)이 지팡이를 시냇가 바위에 비껴 놓고 놀았다고 하여 처음에는 오로라고 했는데 어느 때에 오륜(五倫)으로 바뀌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무릇 지명이 헛되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니 이곳으로 말하면 글 읽는 소리가 집집마다 나고 어린 아이들은 예절을 지키고 초동목수(樵童牧豎)도 올바른 일을 숭상하는 것을 보면 오륜으로 지방민을 가르치기 위해 지명부터 고친 것이 아닌가도 모르겠다. 고인(古人)은 지명과 존명을 중시한다. 이곳이 이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경치도 좋아 내가 일찍이 구곡가(九曲歌)를 지어 칭찬한 일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유람객이 드물다. 공자의 말씀에 ‘도(道)가 사람을 멀리 한다’ 하셨거늘 이 곳 경치가 아름답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몰라 준 까닭이다. 말하자면 진(眞)과 속(俗)은 서로 추향(趨向)이 다르고 향초와 악초가 한 그릇에 용납될 수 없고 난초와 혜초가 같아 보이나 향취가 다르다 초시(楚詩)에 이르기를 지조(贄鳥)와 범조(凡鳥)가 함께 놀지 아니하고 봉(鳳)은 굶주려도 조(粟)를 먹지 아니하고 가시덤불에 앉지 아니 한다.

이 때문에 지혜로운 물은 어진 산과 짝이 되고 고사와 속인이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어찌 억지로 되는 일리오. 서로의 뜻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두 끝을 잡고 저울질 해 보면 참과 거짓이 저절로 나타난다. 사람이 나서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성취하는 것이다. 부디 후세 자손들에 부탁하는 마음이 산과 물처럼 무궁하니 내 뜻을 알려주기 바란다. 죽림 박주연 선인의 ‘윤대집’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동래의 역사와 문학 - 부산대 환경공학 박사 박옥현 교수 저서)

수영강 아이들이 착하고 근면하며 예의를 바르게 지키며 자랐던 것은 가풍의 뜻도 있겠

지만 선인들의 정신이 배여 있는 자연의 정기를 받고 자랐던 뜻도 있었을 것이다. 오륜대의 높은 정기가 수영강의 물과 구름으로 늘상 아이들을 지켜 주었고 아이들은 그 자연의 정기 속에서 안전하고 착하고 바르게 자라온 것을 볼 수가 있다.

선대귀연, 오륜대에서 돌아오는 구름은 수영강 아이들의 수호신이였다.

그때의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은 모두 노년이 되었고 이제는 다시 후손들의 구름으로 남아 수영강을 지키고자 한다. 수영강의 물속에서 자랐고 그 생생한 놀이의 추억이 평생을 함께하며 행복의 자리로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그땐 그걸 몰랐었다. 놀 곳이라곤 그저 수영강 뿐이었던 시절이었다. 이제 그런 추억을 자식과 손자들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왕손이 쉬어 갔다는 원래의 동대로 경치가 복원이 되기를 바라고 물이 맑고 깨끗해서 고기가 많았다던 수영강으로 복원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 동대8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신다. 귀중한 천혜의 자연인 동대가 오륜대와 더불어 후대에 귀중한 자연유산으로 남겨 지기를 희망하고 계시는 것이다. <끝>